

깊은 고백 (요한복음 12:1-8)

오늘 우리가 볼 제목은 깊은 고백이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깊이 고백하는 장면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간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눈에 안 보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잡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절대적이다. 이미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다. 아담 시대의 하나님 계획은 창세기 3:15이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것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답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답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답이었다. 노아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방주였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살았다. 이유 불문하고 방주에 안 들어왔으면 죽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생명과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방주 짓는데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방주 안 들어가면, 굉장히 착하지만, 죽는다. 그러나 그 당시 도둑 같은 캉패가 있는데, 동네 좋은 거 다 가져가는 도둑놈이고 캉패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배를 보니까 좋아 보여서 들어가서 가지려고 들어가면 산다. 참 놀라운 일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된다. 출애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답이 아니었다. 이방민족에게도 이것이 답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무조건 가지만 하면 광야는 통과가 되는 것이다. 그냥 광야를 가면 3일 안에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 그런데 가나안 땅, 이라고 가면 40년도 사는 것이다. 믿음 없어도 관계 없고, 능력 없어도 관계 없다. 확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 없다. 간다고 하고 가면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이다. 너의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 내것이면 된다. 언약은 항상 이렇고, 지금도 이렇다.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믿겠는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가는 것이다. 따질 것도 없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 이정도 하면 충분하겠지, 이게 아니다. 계속 죽을때까지 해야 한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결정할 것이 있나? 없다. 결정은 이미 끝났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이다. 그냥 우리가 하는것만 남았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정할 권한도 없지만 결정할수도 없다. 이미 끝났다. 이게 답이다. 응답 받고 싶으면 응답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해보고 결단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면 부족한 것이 나오게 된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이게 없으니까 우린 안합니다. 이걸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 돈이 없어도 돈을 주세요 이래 되어야 한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제자를 보내주세요 이래야지 제자가 없어서 안한다. 이걸 아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자세이다. 전부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할까요 말까요? 이런건 기도제목이 아니다. 이미 정해졌고, 변하지 않는다. 생각할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걸 안되겠어요. 이걸 안된다. 틀렸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겠습니까. 힘을 주세요. 이래야지. 무조건 해야 한다. 내 형편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대로 중단없이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광야도 통과할수 있는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놀랍다. 인생을 역전시킬수 있는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도 이렇게 해야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만나 내려오는 것이고 멀쩡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내가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면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다. 다른 무엇에 잡혀있어서 그렇다. 이 가나안이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이다. 여기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사명이 아니다. 사명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 나는 이 사명,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전부 크든 작든 이런 언약의 여정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모가 부족해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자식 축복하실줄 믿는다. 틀림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신다고 했다. 이것 하나 뿐이다. 간단한 이야기다.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많고 또 인생이 복잡한 이유 한 개 있다. 이게 안 들어가서 그렇다. 맘대로 안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싸우는 것이다. 막는 것은 사탄이다. 이것 하나 뿐이다.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여기에 맞추는 것이다. 내 형편에 맞게.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나의 시간표인 것이다. 나는 돈이 만불 뿐인데, 백만불짜리를 할수 있나? 안된다. 돈이 만불 뿐이면 천불짜리 하면 된다. 그건 할수 있다. 십만불짜리 하는 사람과 천불짜리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나는 왜 인생이 안 풀리나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출서라. 나는 내 인생의 광야가 왜 이런가? 그러면 여기에 출서라. 이런거 저런거 말할 것도 없고 기도 많이 할 것도 없다. 여기 출서고 내 인생 형편에 맞게 가면 끝이다. 오늘 이 마리아는 통이 큰 여자였다. 어떻게하다가 통 큰 여자가 되었는가? 300데 나리온이면 일년치 월급인데, 어떻게 이렇게 통큰 여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진짜 안 것이다. 그래서 통큰 여자가 되었다. 통큰 인생 되고 싶은가? 통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아니다. 그건 종교다. 영적으로 먼저 통이 커져야 한다. 어디서부터? 그리스도. 통큰 인생이 된다. 기도제목이 커지게 되어 있다. 기도제목이 억지로 크게 한다고 커지나? 그리스도 딱 들어가면 크게 놀게 된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뛰어들어도 죽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죽는가?

1. 바른 고백

깊은 고백인데 다르다. 영동한데서 깊으면 안된다. 그럼 사람도 이상해지고 인생도 이상해진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발에 아주 귀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씻은 사건이다. 여성이 어떤 사람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하면 그 여성이 어떤 생각으로 했겠는가? 자기가 표시할수 있는 정성의 모든 것을 표현했다는 뜻이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 아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쓰인 이 향유가 지상 최고의 향유이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향유는 이스라엘 국내산이 아니라 인도나 네팔 같은데서 수입해온 명품인 것이다. 일년간 받는 월급이 얼마 되는가? 그것 몽땅 털어서 향유를 사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보통 여성이 아니다. 보통 통이 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깨달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깨달아서는 이런짓 못한다.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 이 여자는 진짜 알았다. 그리스도. 정말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그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죽는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확실히 알았다. 일년치 던졌다. 이정도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액수도 쉽지 않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알았다. 그 발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최고의 향유로. 못은 손에도 박힌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감히 나같은 죄인이 그 손을 씻겠는

가, 하면서 발을 씻었다. 많이 울었을 것이다. 머리로 한번 하고 말았겠는가? 이런 심정을 가진 여성이? 울면서 고백했을 것이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예수님은 다 알았다. 제자들은, 옆에서 물론 가룟유다같은 인간은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나뉘라고 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았다. 이것은 내 장사 때문이라는 것을. 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니가 어찌다가 이것을 알았냐고 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니가 어찌 이것을 알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 복이 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인을 고쳐달라면서 한 고백이 있다. 그것을 보며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방인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나 이게.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왔다. 마리아의 신앙고백이 이정도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비싼 것을 버렸으니까? 머리털로 발을 씻는 헌신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기준이 어디에 있는것인가? 말이 안된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이고, 울면서 발을 씻으면서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일도 전해질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도 마리아만큼 그리스도에 대해 발견하기 바란다. 마리아는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절대 아까운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면 안된다. 진짜 깨달아야 한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냥 덮고 다 지나가 버리면 다 허사다. 멈추어 서서 맞는가 질문하고 답 내야 한다. 답이 났기 때문에 뭐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주님은 이것을 받을 만 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말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 말 없이 울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았다. 그 발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향유,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부여야지, 안그러나? 피할수 없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주님에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더 이상 이 고백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이다.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발을 씻으면서 입을 한두번 맞췄겠는가?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심정이 어땠겠는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데. 이 발에 나 때문에 대못이 박힐 것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알면 느껴질 것 아닌가?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아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할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합해서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이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발견한 만큼 인생 되어진다.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게 들어와서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메시지를 듣는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다. 은혜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 내야 한다. 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느껴지게 하고 아는데 아니고 느껴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게 진짜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 시간 없으면 다 껌데기는 아니지만 받은 껌데이기이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하라.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가?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

유다는 참으로 맞는 악한 소리를 했다. 유다는 오늘 말씀대로 돈이 목적이 있는 도둑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고 사람을 선동하는 아주 악한 소리를 했다. 이게 가룟 유다보고 악하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이다. 선한 악한 소리가 있다. 비슷한 방향속에. 이룬데 속으면 안된다. 이런 말에 속는 이유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이다. 기준은 그리스도와 237이다. 분명해지면 이런 소리가 안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간파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안이 열린다. 너는 그냥 틀린 소리가 아니고 악한 소리이다.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그 악한 소리로부터 지켜야 한다. 당연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꺾는 기도 해야 한다. 우리 중에는 전도자로 살고 싶은 분 많이 있다. 내가 진짜 중직자로 살고 싶다는 분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류의 말에 속으면 안된다. 모든 전도 현장에는 항상 선한 악한 소리가 있다. 전도자가 여기 속아버리면 안된다. 지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인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나드함과 같은 최고의 명품을 수백개, 수만개 쏟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영똥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룟유다에게 이게 보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닌 사람은 반박에 안 보인다. 그러면 반은 악한 소리가 되는 것이다. 자동으로. 내 믿음이 100% 안된다. 내 믿음 50%여도 오직은 할수 있다. 억지로라도 오직을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237을 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가난한 땅을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은 길에 서면 안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 길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어디가 길인지 찾을필요 없다. 이미 마련해놓고 안 바뀐다.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안 바뀐다. 무조건 가야 한다. 설명도 필요 없다. 같까요 말까요 말이 안된다. 틀린 말이다. 237과 관련된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면 그걸 보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다. 하나님 가겠습니까. 흥해를 해결해주세요라고 해야지, 아니 흥해를 어떻게 건너요?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틀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기도 응답해달라고 할 필요 없다. 이 길로 가면 답 난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이것은 당대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답이 되는 길이다. 그리스도와 237이 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237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는 말이다. 응답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기가 쉽다. 잘 생각해보라.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그리스도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간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나도 부족한 것 많이 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도 많이 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그럼 완전하고 된 후에 237 할거냐? 틀렸다.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237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다 된다음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내 모습 이대로 237 하는 것이다. 길이 있다. 진짜 답을 잡으라. 살아가야 할 미래의 광야가 있는가? 성경은 이게 답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눈을 열어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